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경향

†박옥련 · 이현지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The Representation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in Korea Since the 1990's

†Ok-Ryun Park · Hyun Ji Lee

Dept.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2003. 11. 1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men's fashion with the representation of Feminization which has appeared on our specialized fashion magazine from 1990 though 2003.

Firstly, the factor which exposed the representation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were the change of conventional sex role, the change of ideal beauty, the variety of information, the pursuit of personality and the polycentrism of thought.

Secondl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represented fitted silhouettes which distinctively show the body line, elastic fabric and see-through fabric of androgynous image, accessory and wave hair which expressed in gentle image. In colors, it represented vivid tone, pastel tone, red colors and yellow colors. Fitted silhouettes and elastic fabric has a effect of minimalism of the last 1990's fashion, and wave hair of gentle image has a effect of change of ideal beauty since 2000.

Therefore, elements of representation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were silhouette, fabric, color, accessory, hairstyle and the representation of femininity in men's fashion has reference to fashion.

Key words: Feminization, Androgynous, Men's Fashion; 여성성, 양성성, 남성패션

I. 서 론

1. 연구 목적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변화 속에서 특징적인 사회 현상의 하나로 성 개념의 혼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개념의 혼돈현상은 80년대 이후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복에서 특징적인

변화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한 성역할 개념으로 인해 남·녀 성차에 대한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어져 왔고, 이로 인해 남아 선호사상에 의한 인구 성비 불균형현상 등 성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들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가족 부양의 의무에 묶여 있던 남성들에게 생활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여유는 남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성들의 패션에 변화가 오게 된다(www.style.chosun.com., 2000). 지금까지 남성들의 패션은 전통적 성 고정관

†Corresponding Author

Tel: 051-620-4664; e-mail: ylpark@star.ks.ac.kr

2003년도 교내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념에 따른 뚜렷한 의복규범 속에 형태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의복의 변화 뿐 아니라 액세서리 착용과 화장품 사용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성의 혼돈 현상인 양성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성의 혼돈 현상과 양성적 복식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여성복의 관점에서 양성화경향을 연구(김경옥, 1998; 김이은, 1996; 유홍식, 2001; 채수진, 1999) 한 경우가 많고,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관한 연구(김세영, 1995; 박미라, 1995)로 다수 있으나, 국외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경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남성복에 표현된 여성화 경향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남성복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인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남성 패션을 이해하고 남성복 디자인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첫째,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출현배경을 알아보고, 둘째,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적 표현을 유형화하고, 셋째, 국내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을 1990년 이후 잡지를 통해서 분석한다.

II.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

1. 양성화 출현배경

1) 성역할 인식변화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의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으나, 점차적으로 성역할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여성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사회진출증가로 인한 남성의 역할과 인식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도 가부장제도 속의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남성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이상미 변화

최근 들어 남성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의 근육으로 과장된 몸매에서 전체적으

로 비례에 맞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스타일이 선호되고(백유진, 1997), 이런 경향은 ‘꽃미남’이란 신조어의 등장으로 알 수 있다. 2002년 ELLE 7월호에는 보호해주고 싶은 연약한 남성의 이미지가 선호되고 있고(그림 1), 매력적인 남성의 이미지는 하얗고 깨끗한 피부, 잘 정돈된 눈썹, 슬림한 몸매 등으로 표현되어 남성의 여성화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이상미 변화는 남성전용화장품의 세분화, 남성컬렉션의 활발한 움직임, 남성 다이어트 증후군, 남성전용 액세서리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남성의 여성화 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꽃미남 전성시대”, 2002).



<그림 1> 2000년대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

3) 정보의 다양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에 따라 교통, 통신의 보급,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매스미디어의 증가, 인쇄매체의 증가, 연극영화의 보급 및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대중화로 문화의 대중화현상이 확산되었다(박찬부, 1991). 특히 60년대 후반에 이르러는 상업 민영방송 등의 방송매체가 생겨나면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 컬러TV의 보급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정보를 주게 되었다.

TV뿐만 아니라 잡지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점점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남성잡지 에스콰이어가 등장하였고, 1998년 GQ, 에스콰이어 한국판이 나오으로써 국내 남성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한 PC를 통한 인터넷의 보급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패션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신속한 패션정보를 얻음으로써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에 도움을 주게 되고 이는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개성추구현상

80년대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더욱 향상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전반적으로 획일적인 가치관을 지양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의 의생활에도 점차 자신의 개성적인 복식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복자율화에 따른 개성추구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따른 코디네이션 영향에 따라 점차 남성들이 토탈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어 코디네이션에 의한 다양한 스타일을 개성있게 연출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은 여성스런 퍼머스타일, 목걸이나 팔찌 등의 장신구 사용도 하게 되었다(동아연감, 1998)(그림 2). 의복에 있어서 개성추구현상은 신



<그림 2> 80년대 짧은 웨이브스타일

체의 선을 드러내는 스타일, 화려한 색채, 실크, 레이스, 벨벳, 모피, 비치는 소재의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패션소품에도 화려한 색상의 구두, 남성용 샌들, 슬리퍼, 모자, 엄썩, 퍼머 등을 통해 개성있고, 패션너블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다.

5) 사고의 다원화 현상

20세기 후반 서구문화 사회를 지배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시켜 복합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좌파 대 우파, 현재 대 과거, 남성우월주의 대 여성차별주의 등과 같은 현 사회가 지니고 있는 대립개념의 쌍들을 해체하고 서로의 특징을 수용, 통합함으로써 서로 함께 공존하여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고 표현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현대의 개성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남성적 이미지 요소와 여성적 이미지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출하는 양성적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었다(박명희, 1991). 복식에 있어서도 20세기 전반기에는 스포츠의 보급,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남성적인 이미지의 기능적인 복식이 강조된 반면, 후반에는 앤드로지너스룩에 영향을 주어 기능적인 요소와 장식적인 요소를 동시에 강화시켜 나타냈으며,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게 된다.

3. 남성복식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 유형 분류

복식에 나타난 남성적·여성적 이미지는 Northrup의 음양이론을 통해 정의 된 바 있고, 이 외에도 Mc Jimsey(1973), Horn & Gurel(1981), M. Davis (1987), 이민선(1993), 채수진(1999) 등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인 복

<표 1> 남성복식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 표현요소

	선행연구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	연구자 정의
형태	X자형실루엣, 피티드실루엣	X자형실루엣, 피티드 실루엣
소재	부드럽고 하늘한 소재, 가벼운 소재, 고운 소재, 비쳐보이는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	비치는 소재, 부드러운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소재
색채	화려한 유채색과 근접한 명도대비, 고명도·고채도의 색상	R계열, YR계열, Y계열, 비비드톤, 파스텔톤
무늬	작은 무늬, 식물무늬, 추상화 된 무늬, 의복전면에 걸친 무늬	꽃무늬, 도트무늬, 추상무늬
악세서리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여성용 벨트, 부채	장신구, 모자, 스카프, 머플러, 여성용벨트
헤어스타일	긴머리, 멋내기 엄썩 헤어, 헤어악세사리를 이용한 스타일, 포니테일 스타일	단발머리, 긴 머리, 웨이브머리

식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를 형태, 소재, 무늬, 헤어,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형태요소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 수평선, X자형 실루엣, 몸에 꼭 맞는 형(Fitted silhouettes)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소재요소는 부드럽고 하늘한 소재, 가벼운 소재, 고운 소재, 비쳐 보이는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 등으로 정의되었다.

셋째, 색채요소는 화려한 유채색과 붉은 계통의색, 근접한 명도대비, 고명도·고채도의 색상으로 정의되었다.

넷째, 무늬요소는 꽃무늬, 도트무늬, 식물무늬, 추상무늬, 작은 크기의 무늬, 의복전면무늬 등으로 정의되었다.

다섯째, 패션소품은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여성용벨트, 부채 등으로 정의되었다.

여섯째,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 웨이브머리, 포니테일스타일, 염색헤어스타일, 헤어액세서리를 이용한 스타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선행연구 내용을 복식의장학(유송옥, 1976), (이은영, 1983)에 결부시켜 정의하면 <표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정의

1) 양성성(Androgyny): 사전적 의미로는 '자웅동체, 양성공유'를 뜻하며, 이분법적 사고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서로 함께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정의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잡한 결합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 양성간의 정신적 조화를 암시하기도 하며,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지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상태를 의미하며, 두 특징이 결합되어 하나의 다른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성'으로 존재한다(김경옥, 금기숙, 1998).

2) 복식에서의 양성성 개념: 남성이 복식의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채택하거나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채택하여 두 성의 복합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복식으로 남성이나 여성 어느 누구에게도 적합한 복식을 가리킨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남성복에 표현된 여성화 경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에 대해 조형요소별로 살펴본다.

연구문제2: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표현에 대한 시기별 특징을 조형 요소별로 비교고찰한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심리학, 복식사, 학위논문, 패션전문지, 기사색인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적 방법으로는 패션잡지에 나타난 사진자료를 분석자료로 하여 통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국내패션동향을 잘 보여주는 '월간 밋', 'ELLE', 'S.F.F.A collection'을 선정하여, 1990년대 이후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의상학과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7일부터 2003년 8월 22일까지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제1기(1990년-1994년), 제2기(1995년-1999년), 제3기(2000년-2003년)로 나누고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IV.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분석

1. 조형요소별 여성화 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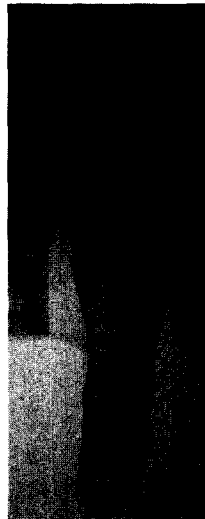
연구문제1: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에 대해 조형요소별로 살펴본다.

1) 실루엣

실루엣에 있어서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를 살펴 보면, 피티드실루엣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990년대 전반인 제1기에서는 기타 실루엣이 70.2%로 나타나 여성화 경향이 실루엣에서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실루엣 N(%)

시기	실루엣	X실루엣	피티드실루엣	기타	계
제1기 (1990년-1994년)	11	3	33	47	
	23.4	6.4	70.2	100.0	
	28.2	2.3	25.4	15.7	
제2기 (1995년-1999년)	13	88	42	143	
	9.1	61.5	29.4	100.0	
	33.3	67.2	32.3	47.7	
제3기 (2000년-2003년)	15	40	55	110	
	13.6	36.4	50.0	100.0	
	38.5	30.5	42.3	36.7	
계	39	131	130	300	
	13.0	43.7	43.3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 피티드실루엣

1990년대 후반인 제2기에서는 피티드 실루엣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루엣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미니멀리즘의 유행으로 인해 슬림한 라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그림 3). 제3기에서는 기타실루엣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나나, 피티드실루엣이 36.4%, X실루엣이 13.6%로 나타나 여전히 실루엣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소 비율이 낮아진 현상은 미니멀리즘의 유행이 사라진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루엣에 있어서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피티드 라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소재

소재에 나타난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는데, 신축성 소재가 상의 16.5%, 하의 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상의에서는 시기별로 볼 때 제1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재가 보이지 않으나, 제2기에서는 신축성 소재가 25.7%, 제3기에서는 비치는 소재가 31.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의에서도 제1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재가 없었으나 제2기에서는 26.4%. 제3기에서는 21.1%로 모두 신축성 소재가 높게 나타났다. 제2기에서는 상·하의 모두 신축성 소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유행한 미니멀리즘의 경향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실루엣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의 표현요소로 가장 높게 나타난 피티드라인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화 경향을 나타내는 소재로 신축성 소재와 비치는 소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국의 남성복의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이효진, 류근영, 2000) 결과와 비교 해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남성복에 나타난 대표적인 소재로 광택소재, 비쳐 보이는 소재, net소재, 신축성 소재, 가죽소재를 들고 있고 이런 소재들이 주로 표현된 이유로 성표현의 변화, 관능미의 표현, 양성화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남성복에 신축성 소재와 비쳐보이는 소재가 많이 나타난 것은 국내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의 표현에서 소재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국외와 비슷한 경향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축성 소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실루엣에 있어서 피티드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97년 S/S 작품으로 상의는 비치는 신축성 소재, 하의는 광택있는 신축성 소재를 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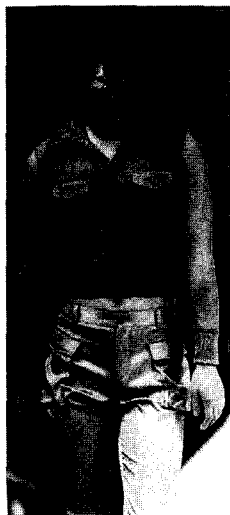
색상에 나타난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고, 색상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은 색상과 톤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색상에 있어서는 상·하의 모두 두드러지게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 3>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소재

N(%)

		상 의				
소재	신축성소재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기타	계	
제1기(1990년-1994년)	2 4.2 3.9	3 6.3 6.4	1 2.1 2.7	42 87.5 24.0	48 100.0 15.5	
제2기(1995년-1999년)	39 25.7 76.5	29 19.1 61.7	26 17.1 70.3	58 38.2 33.1	152 100.0 49.0	
제3기(2000년-2003년)	10 9.1 19.6	15 13.6 31.9	10 9.1 27.0	75 68.2 42.9	110 100.0 35.5	
계	51 16.5 100.0	47 15.2 100.0	37 11.9 100.0	175 56.5 100.0	310 100.0 100.0	

		하 의				
소재	부드러운소재	신축성소재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기타	계
제1기(1990년-1994년)	10 33.3 47.6	2 6.7 3.6	0 0.0 0.0	0 0.0 0.0	18 60.0 15.1	30 100.0 11.8
제2기(1995년-1999년)	11 8.5 52.4	34 26.4 60.7	3 2.3 23.1	30 23.3 66.7	51 39.5 42.9	129 100.0 50.8
제3기(2000년-2003년)	0 0.0 0.0	20 21.1 35.7	10 10.5 76.9	15 15.8 33.3	50 52.6 42.0	95 100.0 37.4
계	21 8.3 100.0	56 22.0 100.0	13 5.1 100.0	45 17.7 100.0	119 46.9 100.0	254 100.0 100.0



<그림 4> 상: 비치는 신축성소재, 하: 신축성 소재

시기별로 살펴 보면 상의에서는 제2기에서 R계열이 19.1%, 제3기에서 Y계열이 18.2%로 많이 나타났고, 하의에서는 제1기에서 R계열, YR계열, Y계열이 고루 나타났으며, 제2기에서는 R계열이 17.8%, 제3기에서는 9.5%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색상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은 R계열, YR계열, Y계열로 고루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색경향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흰색의 대두로 인한 붉은 색 계열의 대비현상과도 상관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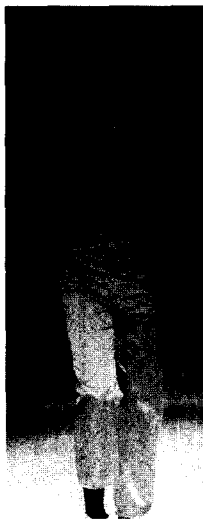
튼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은 상의에서는 제1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제2기에서는 비비드톤, 파스텔톤 13.6%로 나타났다. 하의에서는 제2기에서 비비드톤이 23.3%, 제3기에서는 파스텔톤이 15.8%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미라의 연구(1995)에서 색채에서 비비드톤이 남

<표 4>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색상

N(%)

시기	상 의					하 의				
	R계열	YR계열	Y계열	기타	계	R계열	YR계열	Y계열	기타	계
제1기 (1990년-1994년)	3	1	1	43	48	2	2	1	25	30
	6.3	2.1	2.1	89.6	100.0	6.7	6.7	3.3	83.3	100.0
	8.1	20.0	4.0	17.7	15.5	5.9	50.0	8.3	12.3	11.8
제2기 (1995년-1999년)	29	4	4	115	152	23	2	10	94	129
	19.1	2.6	2.6	75.7	100.0	17.8	1.6	7.8	72.9	100.0
	78.4	80.0	16.0	47.3	49.0	67.6	50.0	83.3	46.1	50.8
제3기 (2000년-2003년)	5	0	20	85	110	9	0	1	85	95
	4.5	0.0	18.2	77.3	100.0	9.5	0.0	1.1	89.5	100.0
	13.5	0.0	80.0	35.0	35.5	26.5	0.0	8.3	41.7	37.4
계	37	5	25	243	310	34	4	12	204	254
	11.9	1.6	8.1	78.4	100.0	13.4	1.6	4.7	8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기	상 의				하 의			
	비비드톤	파스텔톤	기타	계	비비드톤	파스텔톤	기타	계
제1기 (1990년-1994년)	5	0	43	48	0	2	28	30
	10.4	0.0	89.6	100.0	0.0	6.7	93.3	100.0
	7.5	0.0	19.5	15.5	0.0	7.1	14.7	11.8
제2기 (1995년-1999년)	47	7	98	152	30	11	88	129
	30.9	4.6	64.5	100.0	23.3	8.5	68.2	100.0
	70.1	31.8	44.3	49.0	85.7	39.3	46.1	50.0
제3기 (2000년-2003년)	15	15	80	110	5	15	75	95
	13.6	13.6	72.7	100.0	5.3	15.8	78.9	100.0
	22.4	68.2	36.2	35.5	14.3	53.6	39.3	37.4
계	67	22	221	310	35	28	191	254
	21.6	7.1	71.3	100.0	13.8	11.0	7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5> 상: R계열/비비드톤, 하: Y계열/비비드톤

성복의 여성화경향을 표현하는 디자인요소로 높게 나타남과 일치하며, 90년대 후반부터 남성복에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비비드톤의 출현과도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비비드톤의 R계열의 T셔츠와 Y계열의 바지를 착장하여 색상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을 보여준다.

4) 무늬

무늬에 나타난 여성화경향 표현방법은 <표 5>와 같은데, 여성화 경향의 표현방법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의 모두 꽃/식물무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봤을때 꽃/식물무늬는 상·하의 모두 제3기에서 대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남성복의 유행경향으로 다양한 자연무늬가 많이 사용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사

<표 5>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무늬

N(%)

		상 의					
시기	무늬	꽃/식물무늬	추상무늬	도트무늬	기타	없음	계N
제1기 (1990년-1994년)		5	1	1	5	36	48
		10.4	2.1	2.1	10.4	75.0	100.0
		11.1	0.3	0.3	1.6	17.4	15.5
제2기 (1995년-1999년)		10	0	0	0	111	152
		6.6	0.0	0.0	0.0	73.0	100.0
		22.2	0.0	0.0	0.0	53.6	49.0
제3기 (2000년-2003년)		30	0	0	0	60	110
		27.3	0.0	0.0	0.0	54.5	100.0
		66.7	0.0	0.0	0.0	29.0	35.5
계		45	1	1	56	207	310
		14.5	0.3	0.3	18.4	6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 의				
시기	무늬	꽃/식물무늬	추상무늬	기타	없음	계
제1기 (1990년-1994년)		0	1	3	26	30
		0.0	3.3	10.0	86.7	100.0
		0.0	50.0	7.3	13.3	11.8
제2기 (1995년-1999년)		1	1	22	105	129
		0.8	0.8	17.1	81.4	100.0
		6.3	50.0	53.7	53.8	50.8
제3기 (2000년-2003년)		15	0	16	64	95
		15.8	0.0	16.8	67.4	100.0
		93.8	0.0	39.0	32.8	37.4
계		16	2	41	195	254
		6.3	0.8	16.1	7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6> 꽃무늬 자켓



<그림 7> 상: 꽃무늬,
하: 식물무늬

료된다.(www.samsungdesign.net. 2003)(그림 6, 그림 7).

5) 패션소품

패션소품에 있어서의 여성화 경향은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착용이 2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카프/머플러가 10.3%로 많이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인 제1기에서 장신구의 착용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80년대 이후 남성들의 개성추구의 요소로써 장신구착용이 두드러지면서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이 보편화 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제2기, 제3기에서도 장신구 착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패션소품에 있어서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주로 장신구착용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여성스런 느낌의 머플러를 착용한 모습이다.

<표 6>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패션소품

N(%)

패션소품	장신구	모자	스카프/머플러	벨트	기타	없음	계
제1기 (1990년-1994년)	16 32.7 22.2	1 2.0 100.0	10 20.4 32.3	0 0.0 0.0	3 6.1 42.9	19 38.3 10.4	49 100.0 16.2
제2기 (1995년-1999년)	30 21.0 41.7	0 0.0 0.0	1 0.7 3.2	8 5.6 100.0	4 2.8 57.1	100 69.9 54.6	143 100.0 47.4
제3기 (2000년-2003년)	26 23.6 36.1	0 0.0 0.0	20 18.2 64.5	0 0.0 0.0	0 0.0 0.0	64 58.2 35.0	110 100.0 36.4
계	72 23.8 100.0	1 0.3 100.0	31 10.3 100.0	8 2.6 100.0	7 2.3 100.0	183 60.6 100.0	302 100.0 100.0



<그림 8> 여성스런 머플러

6)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은 그다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시기별로 보면 제1기에서는 짧은 웨이브가 1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2기에서는 여성화 경향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이 다양한 길이와 형태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제3기에서는 단발웨이브가 2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헤어스타일 유행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제1기에서 짧은 웨이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80년대 개성추구현상으로 나타났던 웨이브스타일의 계속적인 유행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제2기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난 것은 국내남성의 여성화경향이 증가되어지는 추세로 생각할 수 있다. 제3기에서 단발웨이브가 높

<표 7>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헤어스타일

N(%)

헤어스타일	단발생머리	단발웨이브	긴생머리	긴웨이브	짧은웨이브	기타	계
제1기 (1990년-1994년)	0 0.0 0.0	3 5.3 7.3	1 2.1 10.0	3 6.3 75.0	9 18.8 32.1	32 66.7 15.3	48 100.0 15.9
제2기 (1995년-1999년)	10 6.9 100.0	8 5.6 19.5	9 6.3 90.0	1 0.7 25.0	4 2.8 14.3	112 77.8 53.6	144 100.0 47.7
제3기 (2000년-2003년)	0 0.0 0.0	30 27.3 73.2	0 0.0 0.0	0 0.0 0.0	15 13.6 53.6	65 59.1 31.1	110 100.0 36.4
계	10 3.3 100.0	41 13.6 100.0	10 3.3 100.0	4 1.3 100.0	28 9.3 100.0	209 69.2 100.0	302 100.0 100.0

V. 결 론



<그림 9> 여성스런 웨이브헤어

게 나타난 것은 2000년대 들어 남성의 부드러운 이미지 강조를 위한 헤어스타일로 단발길이의 웨이브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2. 시기별 여성화경향분석

연구문제2: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의 표현에 대한 시기별 특징을 조형 요소별로 비교고찰한다.

지금까지 국내패션잡지에 나타난 국내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소재, 색채, 무늬, 패션소품, 헤어스타일별로 살펴 보면 <표 8>과 같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에 대해 출현배경을 살펴보고, 국내패션잡지 자료를 조형요소별, 시기별로 나누어 국내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남성복의 양성화 출현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여성교육 기회확대에 따른 사회진출증가로 인한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은 경제력과 가족부양의무에서 남성을 여유롭게 함으로써 남성의 자기애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여성적인 남성을 선호하는 시대적인 이상미의 변화로, 90년대 들어 나타난 '남성미'에 대한 관심은 이전의 강인한 남성상을 부드럽게 변화시켰는데 이에 따라 아름다운 남성을 위한 화장품, 액세서리, 패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인터넷과 전문적인 패션정보를 통한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 증가인데, 쉽고 빠른 패션정보를 접함으로써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넷째, 경제성장에 따른 여유로 남성들의 개성추구 현상증가로, 80년대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의 여유는 남성들의 의생활에도 반영되어 토탈패션화, 헤어스타일변화, 액세서리 착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섯째, 전통적인 성의 이분법적 해체로 인한 남·여성 혼용이미지 표현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성에 대한 관념을 깨뜨림으로써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용되어 표출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

<표 8> 시기별 국내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

시기 조형요소	제1기(1990년-1994년)	제2기(1995년-1999년)	제3기(2000년-2003년)
실루엣	X자실루엣	피티드 실루엣	피티드실루엣
소재	상의: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하의: 부드러운소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상의: 신축성소재 하의: 신축성소재	상의: 비치느소재 하의: 신축성소재
색채	상의: 두드러진 색채 없음 하의: 두드러진 색채 없음	상의: R계열, 비비드톤 하의: R계열, 비비드톤	상의: Y계열, 비비드톤 하의: R계열, 파스텔톤
무늬	상의: 두드러진 무늬없음 하의: 두드러진 무늬없음	상의: 꽃/식물무늬 하의: 두드러진 무늬없음	상의: 꽃/식물무늬 하의: 꽃/식물무늬
패션소품	장신구와 스카프/머플러	장신구	장신구와 스카프/머플러
헤어스타일	짧은 웨이브	전체적으로 곱고루 나타남	단발웨이브

었다.

다음은 국내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을 조형별, 시기별로 살펴 본 결과이다.

첫째, 형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피티드실루엣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90년대 후반인 제2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의 영향에 따른 슬림실루엣의 추구현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재에 있어서는 신축성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기별로 봤을때 90년대 후반인 제2기에서 상·하의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피티드실루엣에는 신축성소재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된 것과 관련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국외 남성복의 양성화경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소재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국외와 비슷한 경향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세째, 색상에 있어서는 상·하의 모두 레드계열의 색, 비비드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박미라(1995)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색채에 있어서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은 국외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과 비슷한 요소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무늬는 꽃무늬나 식물무늬의 사용이 상·하의 모두 비교적 많이 표현 남성의 여성화경향에 꽃무늬나 식물무늬가 주로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패션소품에 있어서의 여성화 경향은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스카프/머플러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80년대 이후 남성들의 개성추구의 요소로써 장신구착용이 두드러지면서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이 보편화 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은 전체적으로는 단발웨이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1기에서는 짧은 웨이브, 제3기에서는 단발웨이브가 높게 나타났고, 제2기에서는 다양한 길이와 형태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 제1기에서 짧은 웨이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80년대부터 개성추구현상으로 나타났던 웨이브스타일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볼 수 있고, 제2기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난 것은 국내남성의 여성화경향이 증가되어지는 추세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제3기에서 단발웨이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00년대 들어 남성의 부드러운 이미지 강조를 위한 헤어스타일로 단발길이의 웨이브가 트

렌드로 떠오른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1990년대 이후 국내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실루엣과 소재, 색채,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에서 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제2기인 1990년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남성복의 여성화 경향과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이 비슷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고, 국내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은 국내남성복의 유행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사진자료로 인해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나, 최근 들어 국내남성패션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로 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남성패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36호*, 239-262.
- 김세영. (1995).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은. (1996).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라. (1995). *남성복의 여성화경향-1991~1995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찬부. (1991). *한국복식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송옥. (1976). *복식의장학*. 수학사.
- 유홍식. (2001).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선. (1993).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영. (1983). *복식의장학*. 교문사.
- 이현규. (1998).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현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류근영. (2000).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4), 806-821.
- 채수진.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rn & Gurel. (1995). *The second skin*. 이화연 의 옮김.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 McJimsey.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동아연감. (1998). 동아일보사.

부드러운 남자, 씩씩한 여자-변화하는 성개념. (1999. 7. 3).
Dizzo. 자료검색일 2000. 12. 13, 자료출처 [http://www.
style.chosun.com](http://www.style.chosun.com)
백유진. (1997. 10). *고대 그리스로 향하는 '남성미의 화귀'*.
Elle 한국판. p 177.

올여름 남성패션 화두는 '스포티 & 화이트'. (2003. 3. 28).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3. 4. 3, 자료출처 [http://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꽃미남 전성시대. (2002. 7). *Elle* 한국판. p 88.